



“팟캐스트로 진로 고민 등 우리 이야기 나눠요”

전북도교육청, 학생기자단 활동 활발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듯 어떤가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친구들과 학교 주변 분식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생기자단이 팟캐스트 동아리를 운영해 학교 주변 식당, 진로선택 등 청소년들의 다양한 고민을 나누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다

양한 교육문제를 학생들의 시각에서 이야기 나누자는 취지에서 지난 3월 제6기 학생기자단 45명을 대상으로 팟캐스트 동아리를 모집, 11명으로 ‘JB하트’를 구성했다.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팟캐스트 동아리 회원들은 전주시미디어센터의 도움을 받아 3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모여 아이템 기획

방법, 시나리오 작성, 녹음과 편집방법을 교육 받았다. 교육을 마치고 두드러가 한창인 7월 드디어 첫 작품이 탄생했다. 설서운(이중중 3년) 양이 메인MC로 참여해 2명의 학생과 함께 학교 주변 맛있는 분식집에 대해 수다를 떠는 내용이었다. 분식집에 모여 떡볶이를 먹으며 속제하는 것 좋다는 등 중학생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다.

8월에는 정혜정(근영여고 1년) 양이 메인 MC로 참여하고 양귀비(순창고 1년), 장기

원(전주고 2년), 신진경(부안여중 3년) 양이 게스트로 참여해 진로문제를 주제로 다뤘다. 분량은 대략 15분 내외, 오프닝 음악과 함께 토크와 결말이진 형태다. 완성된 작품을 팟캐스트 포털서비스인 팟빵에 올린다. 현재까지 5편을 제작했고, 매번까지 흥편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양귀비(순창고 1년) 양은 “아직 배우는 단계다. 친구들과 만나 주제를 정하고 수다를 떠는 즐거운 경험”이라고 말했다.

내년 학교 무상급식에 81억원 추가 투입

전북도교육청 “재원확보 최선”

전라북도교육청이 내년 학교 무상급식 예산에 8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4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무상급식단가 200원 인상안이 합의되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51억원, 시·군청에서 16억원, 도청에서 14억원을 부담한 무상급식 예산 8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2,200원, 초등학교 2,400원, 특수

학교 2,900원, 중·고등학교 3,100원으로 무상급식 단가가 인상되며, 내년도 전라북도 무상급식 총 예산은 978억원이 반영될 예정이다.

유치원, 특수학교, 도시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지원금은 도교육청에서 100%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그 외 학교는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학부모의 부담경감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및 재원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 2017학년도

중학생 학력 진단평가 전면 개편

전라북도교육청은 올해 실시했던 중학교 1학년 진단평가(1회 실시)와 3학년 도학력평가(4회 실시)를 2017학년도부터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2017학년도부터 고입 선발고사가 폐지됨에 따라 중학교 3학년 평가는 2회(3월 중순, 9월 중순)에 걸쳐 학력 진

단평가의 방식으로 개편하고, 중학교 예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진단평가는 2학년, 3학년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 개편한다. 이와 같이 평가 방식을 개편한 것은 초등성장평가제 및 전라북도 관학력평가와 맞지 않는 선택형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과정 중심, 학생 성장 중심 수업과의 연계성을 확보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문제해결력, 창의성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든다”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그린에너지 전격 공급

익산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 인센티브 마련을 위한 근질진 노력 끝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부지에 친환경·고효율 발전시설인 20MW급 연료전지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익산 연료전지사업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그린에너지, 부산그린에너지, 노을그린에너지에 이어 네 번째로 추진하는 대규모 연료전지 사업이다.

장현을 익산시장과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연구 사장은 7일 오후 4시 익산시청 홍보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연료전지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은 익산시 왕궁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부지에 20MW급 연료전지사업 추진할 계획으로 약 1천100억 원 정도의 투자에 예상된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관련 행정지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한

국수력원자력은 연료전지사업 건설 및 운영 등 사업개발을 주도한다.

올해 안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2019년에는 연료전지 시설 설치를 마무리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료전지사업이 완료되면 약 3만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20MW의 전기가 생산되며, 전기생산과 더불어 발생하는 열(스팀) 약 10만 톤은 전량 국가 식품클러스터 산업 단지에 입주하는 공장에 제공하여 입주업체는 연간 약 10~15%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연료전지사업은 국가 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예정기업 A사의 경우 연간 2~3억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MW 연료전지사업 추진 시 연간 약 1만 4,7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30년생 소나무 149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내 진로…보다 즐겁게 알아보자

전주교육지원청, 12일 대규모 진로축전 개최

전주교육지원청은 10월 12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12일 대규모 진로축전을 개최한다.

전주교육지원청은 진로 선택을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와 진로교육 체험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2회 진로교육 축제인 ‘내 진로…보다 즐겁게 알아보자’를 개최한다. 12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꿈마중 진로축전을 연다고 밝혔다. 12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꿈마중 진로축전을 연다고 밝혔다. 12일 전북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꿈마중 진로축전을 연다고 밝혔다.

또 덕진초생서, 육군간부, 덕진경찰서, 전주대 박물관 등이 관계 기관도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진로활동전시관에서는 전주성심여중, 전주은교중, 전주동중 등 20개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활동시간에 진행했던 수백 점의 전시물들이 전시된다. 이와함께 진로탐색관에서는 중학생의 진학을 돕기 위해 일반고, 특성화고계열, 도내 대학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학교 안내와 진학 상담, 주요학과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등 3천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유학기제,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진로진학축제”라고 말했다.

“새만금에 세계잼버리 열자”

전북도, 동유럽에서 유치 활동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동유럽 아르메니아 에레반에서 개최되는 유라시아 대륙총회에 참석하여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도는 유라시아 총회에 참가하여 경쟁국 폴란드의 차별화된 유치 홍보를 위해 ‘스마트잼버리’를 주제로 한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주목을 끌었다.

특히 (재)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의 추천을 받은 VR(가상현실) 체험프로그램과 AR(증강현실) 체험을 통해 현장에서 시현함으로써 전북의 앞선 개인 산업과 첨단 IT 산업으로 대한민국 유치지지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총회는 다른 대륙총회들과 달리, 세계잼버리 월드무브 등 유치 홍보를 위해 참석하는 외부 게스트의 인원을 6명으로 강제 제한하는 등 조기부터 유치 홍보 활동 및 참여에 많은 진전을 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행정부지사 일행은 10.6일 ‘유리(Luile)’ 유라시아 사무총장

과 ‘바그라트(Bagrat)’ 세계연맹이사 등 주요인사를 접촉하여 2023 세계잼버리의 새만금 유치에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 보상 분까지 끌어냈다.

또한, 행정부지사 일행은 10월 7일 ‘국제’의 발’ 행사에 참여하여 유치 후보지인 새만금의 장점을 홍보했으며 10월 8일 새로 선출된 유라시아 스카우트연맹 회장 및 부회장과 간담회를 하고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적극적으로 호소했다.

1907년 영국의 베이든프로우에 의해 창시된 세계스카우트 운동은 아대(24개국), 유라(9개국), 아랍(18개국), 유럽(40개국), 미주(34개국), 아프리카(38개국) 등 6개 지역으로 나누어 펼쳐지고 있다. 그중 유라시아 대륙은, 유치 경쟁국 폴란드와 인접해 역사나 문화적 친밀성이 높은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략적으로 이번 홍보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라북도도 유라시아 총회와 별도로 남미 회원국의 표상을 잡기 위해 인터아메리카 홍보단을 구성하여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미주지역 카리브연안(도미니카, 그레나다, 가이아나) 회원국을 순회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전북도교육청 민간위원 292명도

청탁금지법 ‘적용’

전라북도교육청이 4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인 현황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라북도교육청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현황인 현황을 보면 292명 위원회와 292명이다. 학생참여위원회의 위원과 교사인 5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6명, 전북교육발전전략추진위원회 19명

등이 이에 속한다.

또 보조급 심의위원회 8명, 시민감사관 5명,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7명, 행정심판위원회 10명, 공직자 윤리위원회 9명 등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공무원현황인 전체 적용대상은 50개 위원회, 292명이다.

관련 부장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는 법 적용대상자로 삼고 있다.

최첨단 스마트 도서관으로! 우리학교 도서관이 바뀝니다!

아 리 학 사 스마트 체험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음악회 등 다양한 현장 체험 학습 공간이 펼쳐집니다.
- 동영상과 체험도서, e-book으로 헌책보다 더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 학교 도서관은 물론 집에서 손쉽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전북지역 체험 상담 후원회사 **세화테크** 대표이사 이지연

010-5488-2617 sehwa@sehwa.com